

WORLD **HAPPINESS REPORT**

Data Science Lab 7th EDA





CONTENTS

- __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 __ 행복지수의 전세계적 경향성
- 2. Western Europe의 행복지수
- 3. 한국의 행복지수
- **4.** Latin America의 행복지수
- **5.** 결론
- 6. 한계 및 향후 보완방향



Part 0.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O. 행복끼구에 영향을 꾸는 요인



Economy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

Health

국민들이 건강한 상태로 사는 기간

Social support

주변인들의 지원 가능 여부

Trust

부패 인식 정도

Freedom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정도

Generosity

기부 문화의 정도

Dystopia Residual

위 6가지의 요소로 설명 불가한 행복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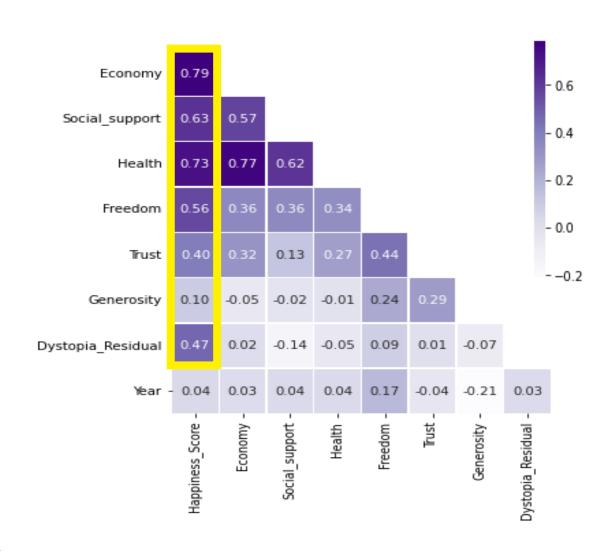


Part 1.

행복지수의 전세계적 경향성

1. 행복끼구의 전세계적 경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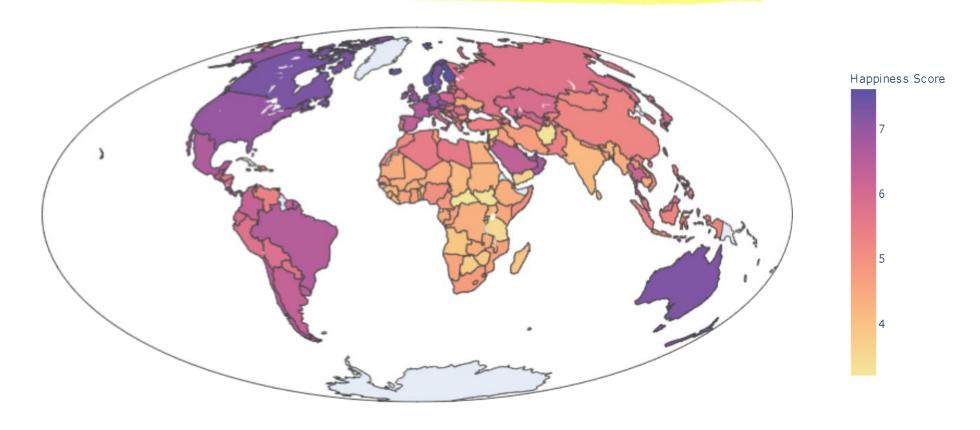


행복지수와 그 외 변수의 상관관계 (2015~2021년)

• Economy, Health, Social support, Freedom, Dystopia Residual, Trust, Generosity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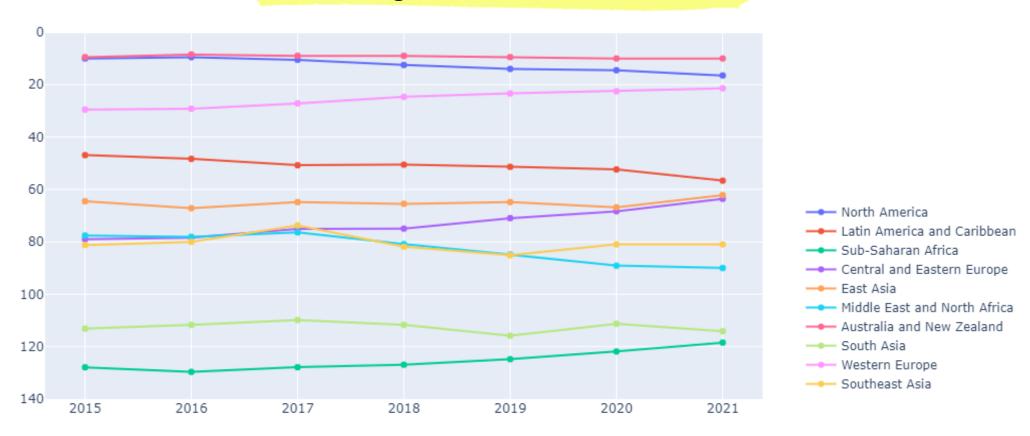
전세계의 행복지수 분포 (2015~2021년 평균)



- · Western Europe과 America의 행복지수가 전체적으로 높음
- · Africa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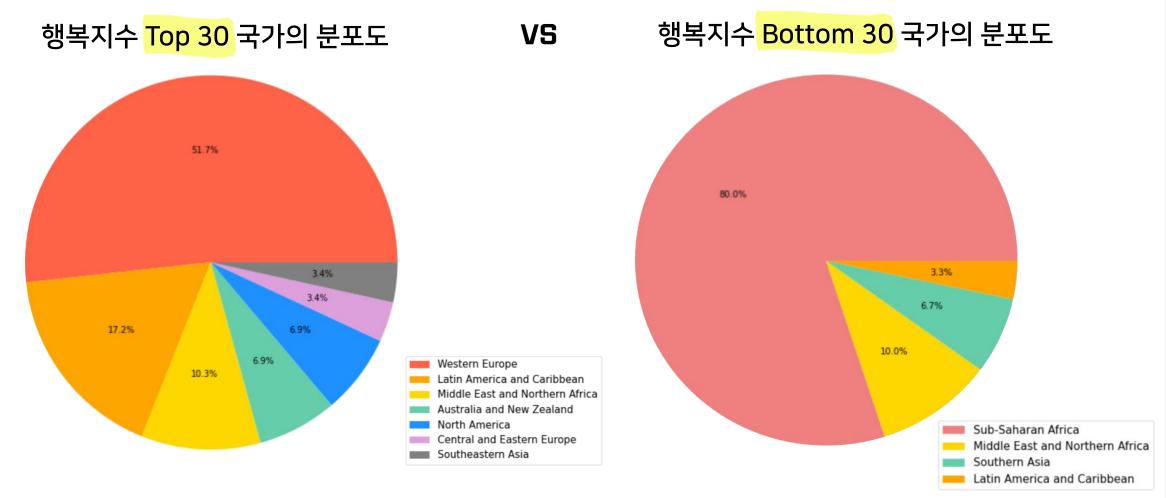


10개 Region의 평균 행복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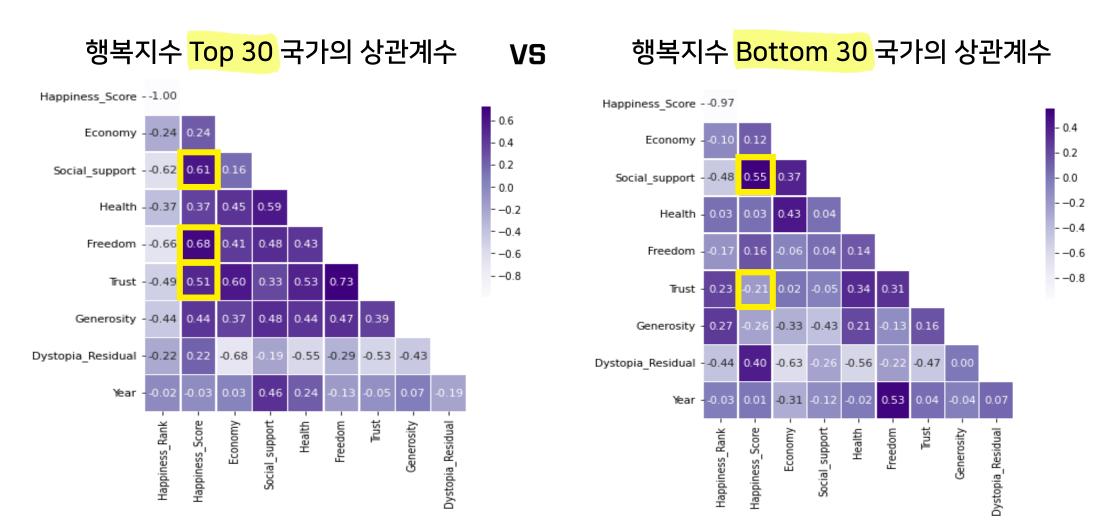
- 1순위 지역: Western Europe
- 하위권 지역: South Asia, South Sub-Saharan Africa





- Top 30: 51.7%가 Western Europe에 분포
- Bottom 30개: 80%가 Sub-Saharan Africa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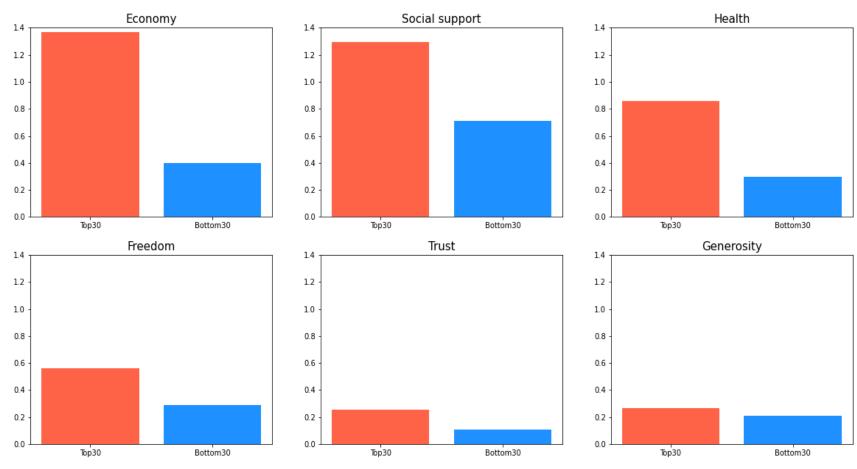




- Top 30: Social support, Freedom, Trust가 행복지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짐
- Bottom 30: Social support는 행복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Trust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행복지수 상위 30개국과 하위 30개국의 각 요소별 평균 비교



• Top30과 Bottom30 국가 사이에서 특히 Economy와 Social support의 수치 차이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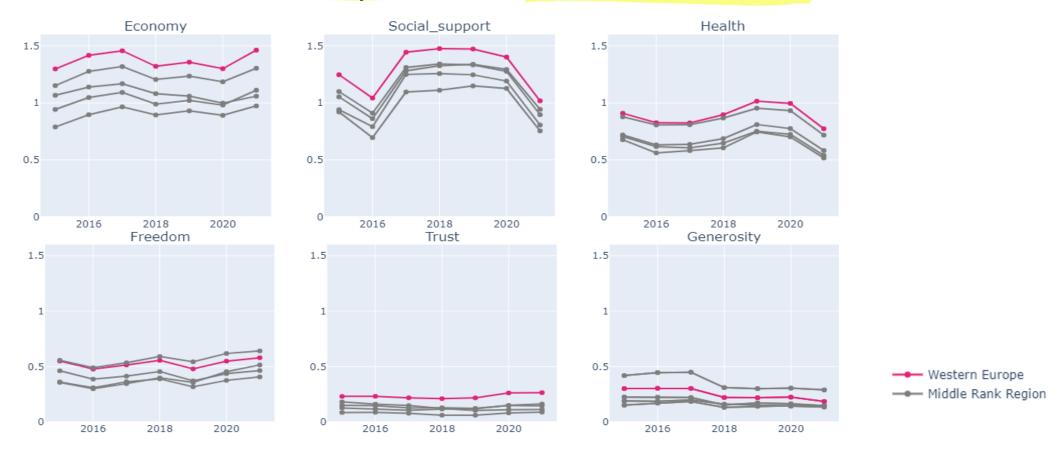
Part 2.

Western Europe의 행복지수

2. Western Europe의 행복제구



Western Europe VS 행복지수 중위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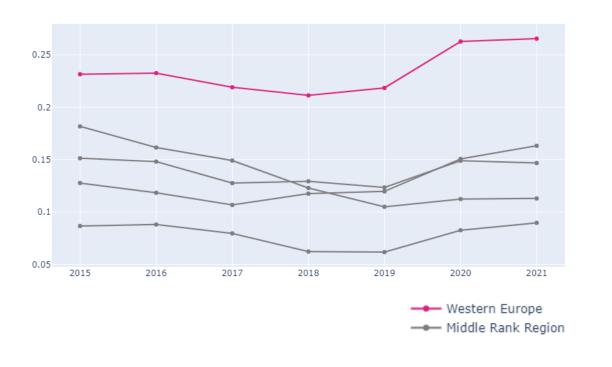
- Western Europe이 우위: Economy, Social support, Trust, Health
- Western Europe이 우위가 아닌 것: Freedom, Genero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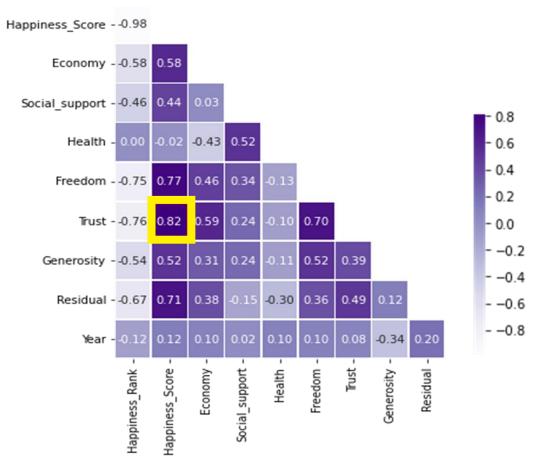
2. Western Europe의 행복제구



Western Europe의 상관계수

Western Europe vs 행복지수 <mark>중위권 지역</mark>의 Trust 비교





- Trust는 Western Europe이 중위권 지역보다 약 2배 높음
- · Western Europe은 Happiness Score와 Trust의 correlation이 0.82로 매우 높음



Part 3.

한국의 행복지수



대한민국 vs 모든 국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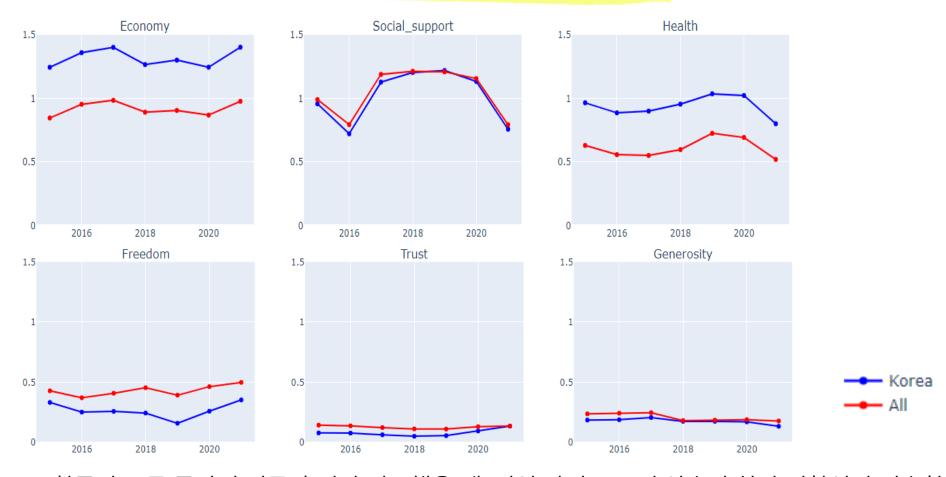




- 한국의 행복순위는 7년간 하강 추세
- 모든 국가의 평균 행복지수는 최근에 상승 추세지만, 한국은 딱히 상승의 경향성이 없음



대한민국 vs 모든 국가 (평균)



- 한국과 모든 국가의 평균 추이와 비교했을 때, 여섯 가지 요소의 상승과 하강 경향성이 비슷함
- 세부적으로는, Economy & Health는 평균보다 높으며 Freedom은 평균보다 낮음



대한민국 vs Western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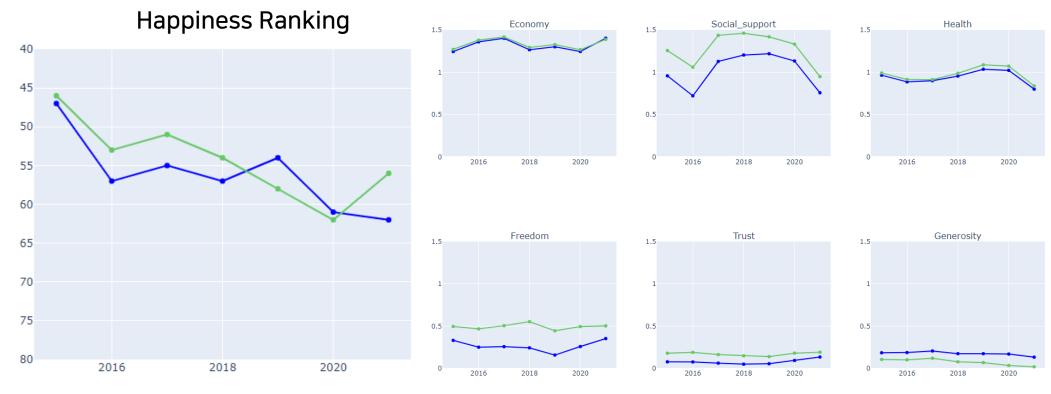


- 한국과 Western Europe의 Economy와 Health는 차이가 거의 없음
- Social support, Freedom, Trust는 Western Europe이 한국보다 높음



대한민국 vs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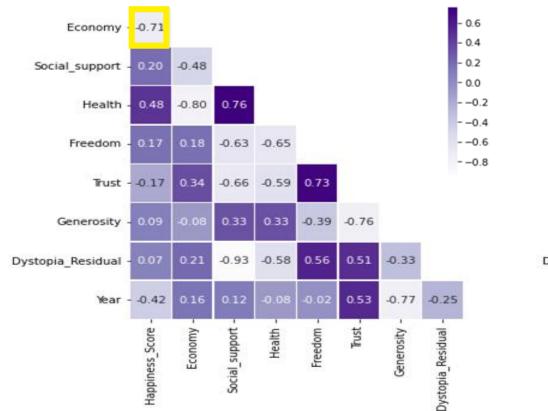
- 한국과 일본은 행복 순위가 비슷함
- Economy, Health도 비슷함
- Generosity는 한국이 앞서지만, Social Support, Freedom, Trust는 일본에 뒤처짐

3. 한국의 행복끼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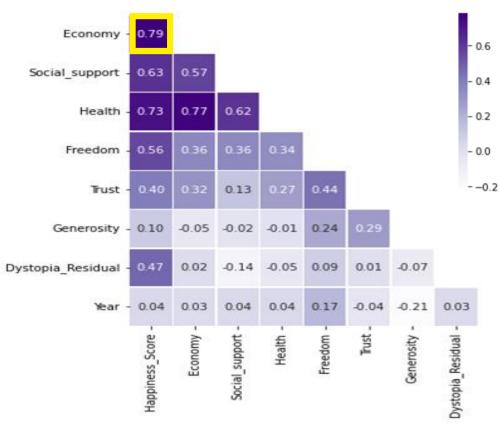


행복점수와 나머지 요소들간의 상관관계

Correlation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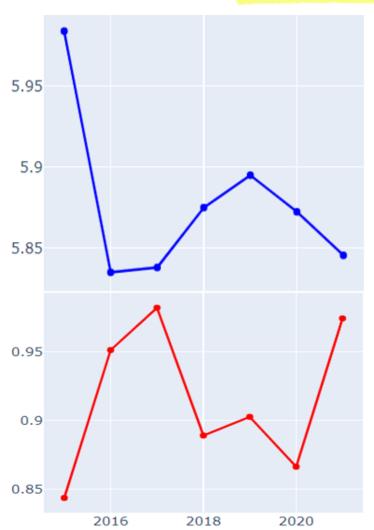
Correlation of All Countries



- 한국과 전체 나라 상관관계에서 가장 차이가 큰 요소는 Economy (0.79 vs -0.71)
 한국은 Economy와 행복지수가 꽤 큰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0.71)



Economy와 Happiness Score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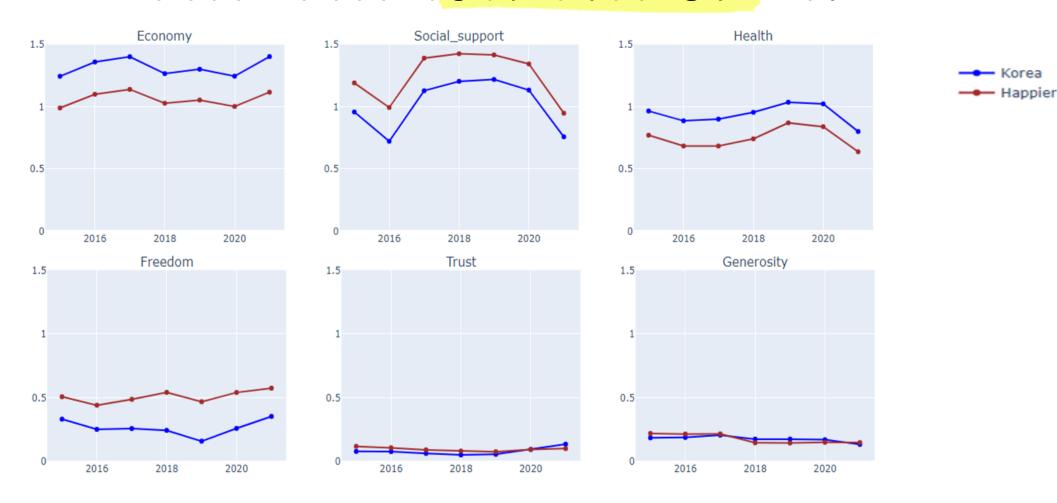
한국의 Happiness Score

한국의 Economy

• Happiness Score, Economy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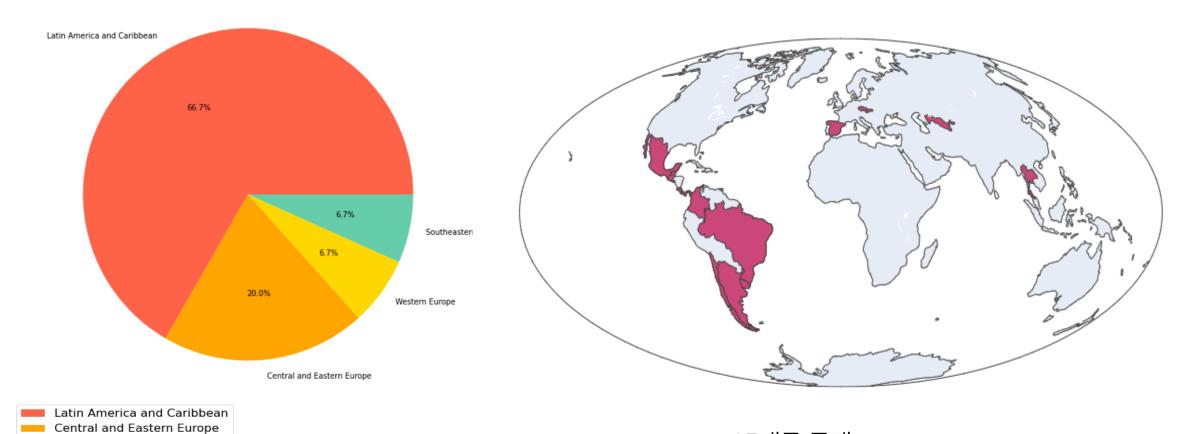
우리나라 VS 우리나라보다 <mark>경제력은 부족하지만 행복한</mark> 15개국



• 우리나라보다 Economy와 Health는 앞섰지만, Social Support와 Freedom은 7년 내내 큰 차이로 넘지 못함



7년 내내 우리나라보다 <mark>경제력은 부족하지만 행복한</mark> 국가



- 15개국 존재
- 그중 대부분이 <mark>라틴아메리카</mark> 지역

Western Europe Southeastern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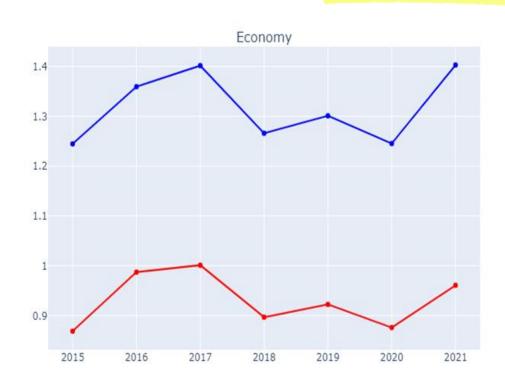
Par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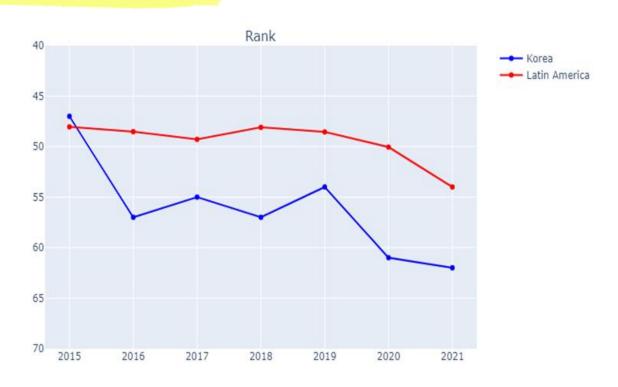
Latin America의 행복지수

4. Latin America의 행복끼구



대한민국 VS Latin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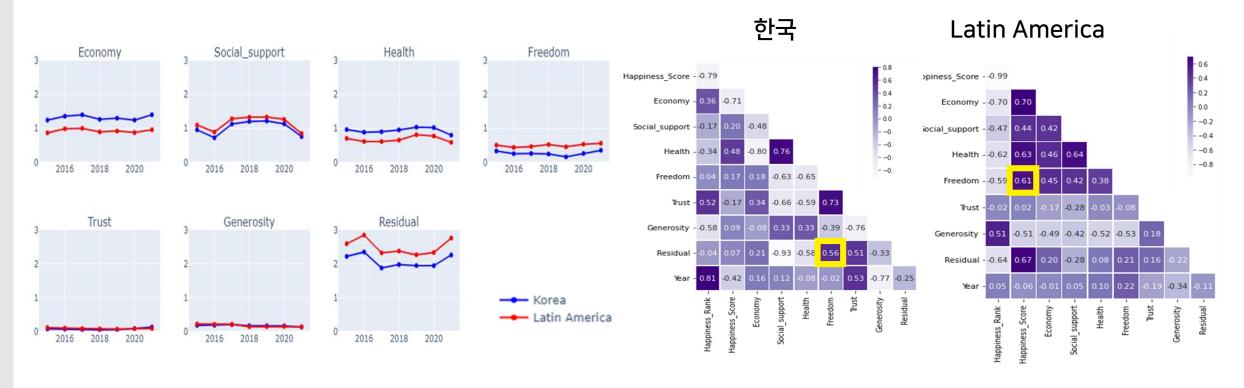


• 한국이 라틴아메리카보다 Economy가 높지만, 행복 순위는 라틴아메리카가 한국보다 높음

4. Latin America의 햄복끼구



대한민국 VS Latin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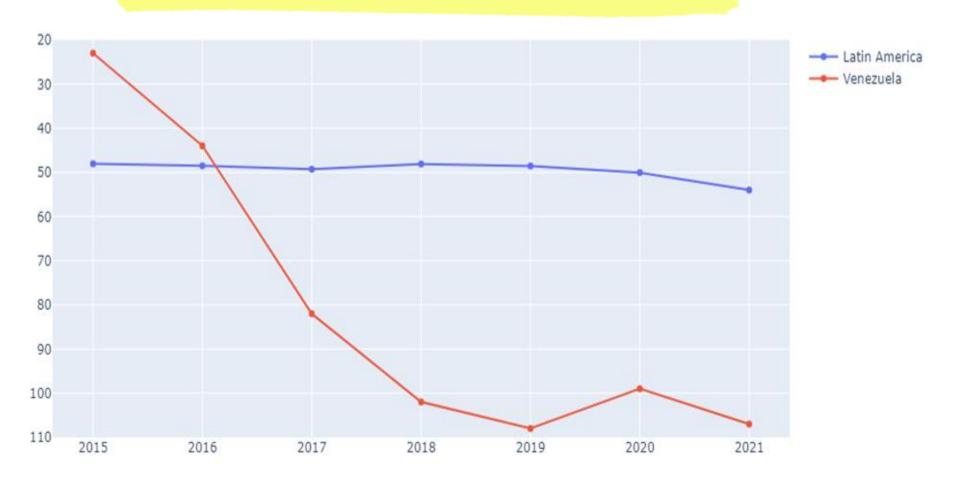


- 한국이 우위: Economy, Health
- Latin America가 우위: Social support, Freedom, Residual
- Latin America는 Freedom과 Happiness Score의 상관관계가 높음 (0.61)
- 한국은 Freedom과 Residual의 상관관계가 높음 (0.56)





베네수엘라 VS Latin America의 행복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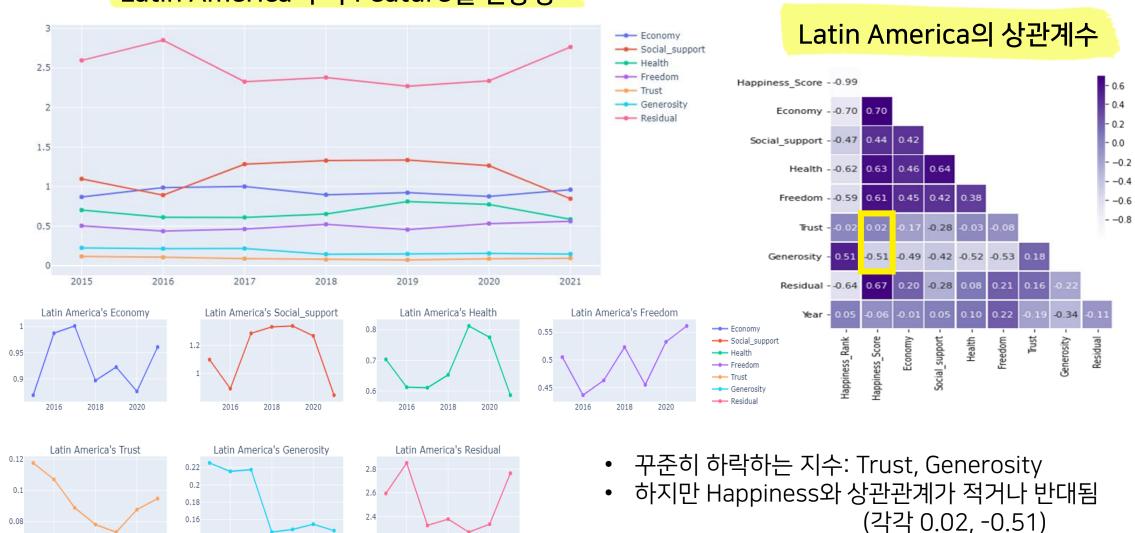


베네수엘라는 행복순위가 급감하는 반면에, 라틴아메리카의 평균 행복순위는 안정적인 경향

4. Latin America의 행복끼구



Latin America의 각 Feature별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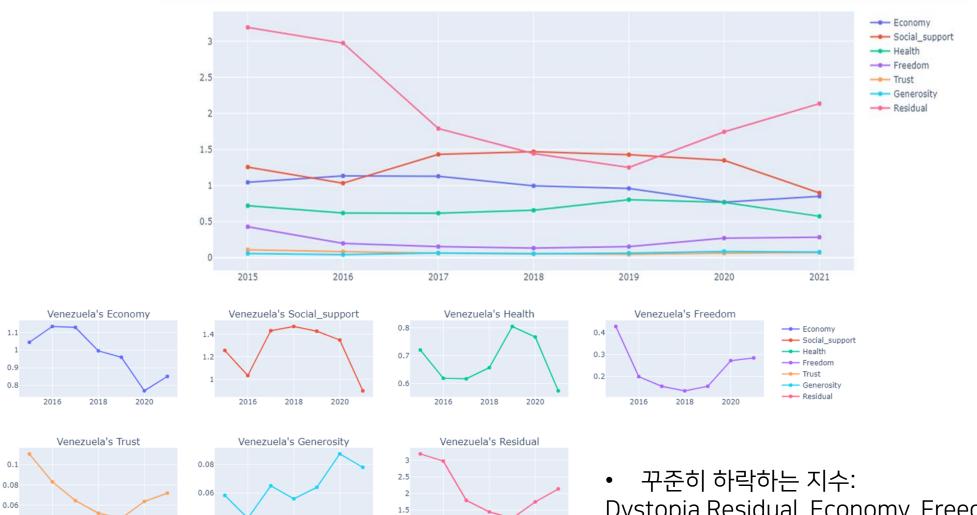


4. Latin America의 행복끼구

0.04



베네수엘라의 각 Feature별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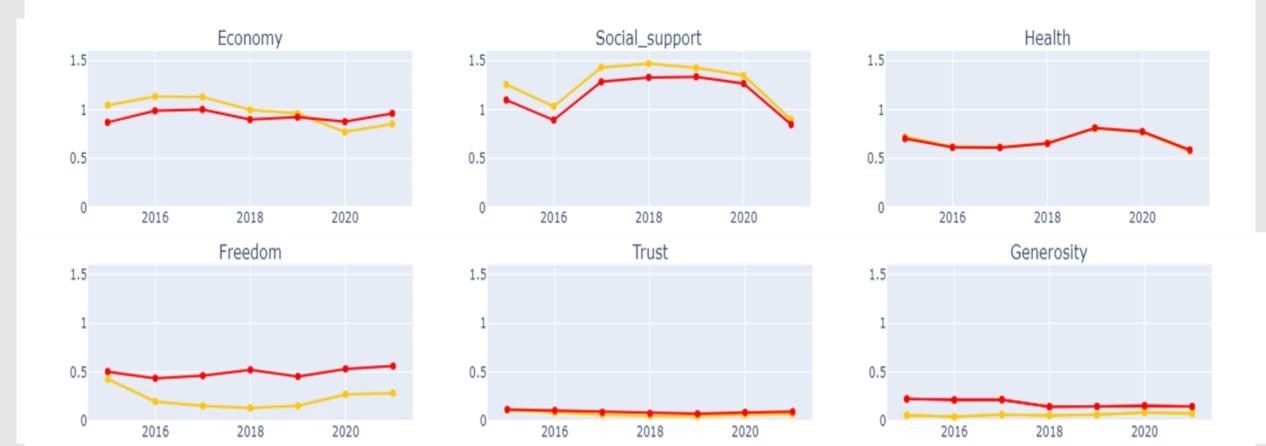
Dystopia Residual, Economy, Freedom, Trust

4. Latin America의 행복제구



베네수엘라 VS Latin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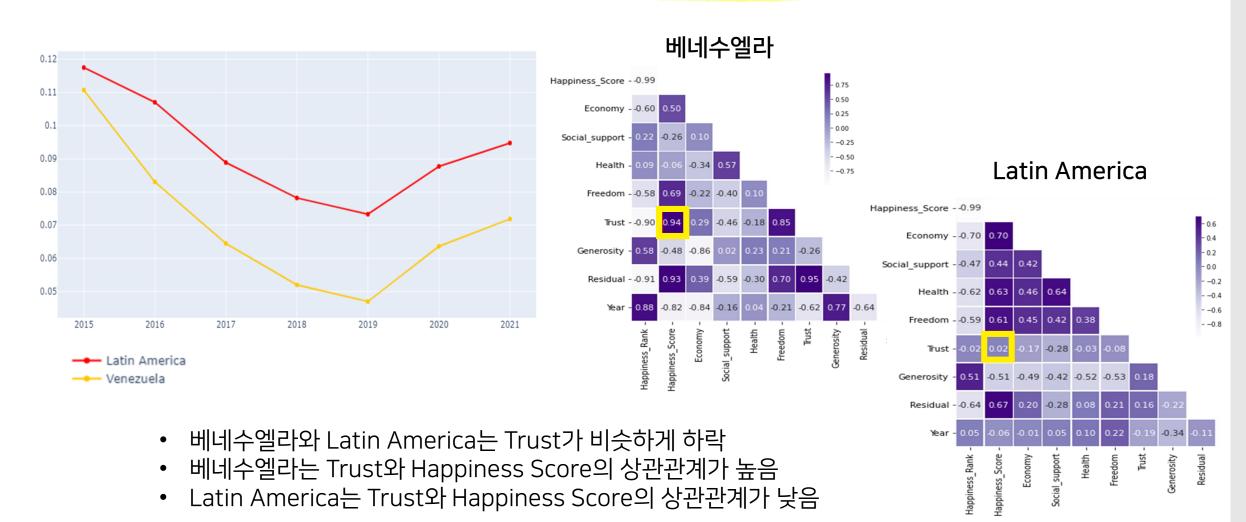




4. Latin America의 행복끼구



베네수엘라 VS Latin America





Part 5.

결론

5. 결론



- Western Europe : 행복지수 Top 30 국가의 약 50%가 속함. 높은 Trust로 행복지수를 높게 유지 가능
- Latin America :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은 부족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 속함. 높은 Freedom 수 치가 높은 행복지수로 연결됨
- <mark>Venezuela :</mark> Happiness Rank가 크게 하락 (22위 -> 108위). Latin America의 주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trust와 freedom
- <mark>우리나라</mark> :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계산된 요소(Economy, Health)에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관적 인식을 담은 지표 (social support, freedom, trust, dystopia residual)에서는 비교적 수치가 낮음



한국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삶에서의 자유,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함



Part 6.

한계점 및 향후 보완 방향

6. 한계점 및 향후 보완 방향



한계점

-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경향성)로 결론을 도출함
- 다른 국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각 feature의 수치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향후 보완 방향

• Dystopia Residual (6개의 변수로 설명 불가한 행복의 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경정해꾸/대 감/I한 LICH

